

국어교육과 영어교육*

—모국어에 미치는 외국어 교육의 영향—

황중배**

< 차례 >

- I. 서론
- II. 다중 언어능력
- III. 이중언어 사용 환경의 다양성
- IV. 외국어 교육과 모국어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언어 습득을 습관의 형성 과정으로 간주하고, 외국어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자가 기존에 습득한 언어, 즉 모국어라고 주장한다. 1970년대 이전 외국어교육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외국어교육에 미치는 모국어의 전이(transfer) 현상이었고, 외국어 학습의 성패는 모국어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간섭(interference)을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고 막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 결과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을 통한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외국어 교육 학자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주의 심리학 및 대조

* 본 연구는 국어교육학회 제37회 학술발표대회(2007. 8.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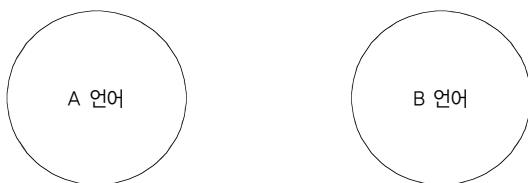
분석에서 강조하던 모국어의 전이는 1970년대 이후 오류 분석(error analysis) 및 중간언어(interlanguage) 혹은 학습자언어(learner language)의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었고,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보다는 언어 습득의 자연적인 순서에 의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인지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언어 간의 전이 현상이 새롭게 조명을 받았는데, 이전의 대조분석적 접근 방법과는 달리 외국어 교육에 미치는 모국어의 일방적인 영향이 아닌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 혹은 학습자가 습득하는 외국어들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전이가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나중에 학습하는 외국어를 통해 학습자의 모국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현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영어 교육 상황에서 과연 영어 교육이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의 습득과 발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유사한 상황에서의 모국어와 외국어 교육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중 언어 교육 및 외국어가 모국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 언어능력(multi-competence)의 개념을 살펴보고, 발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어 교육이 모국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영어교육 상황에서 한국어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 및 지향점은 무엇인지 탐구하도록 하겠다.

II. 다중 언어능력

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를 우리는 중간언어 혹은 학습자언어라고 부른다. 이 학습자언어는 학습자의 모국어도 아니고 학습자가 배우고 있는 외국어에 가깝기는 하지만 원어민이 사용하는 외국

어와는 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외국어 학습자가 갖고 있는 언어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자 언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모국어와 중간언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그림 1>과 <그림 2>처럼 두 가지 극단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 완전 분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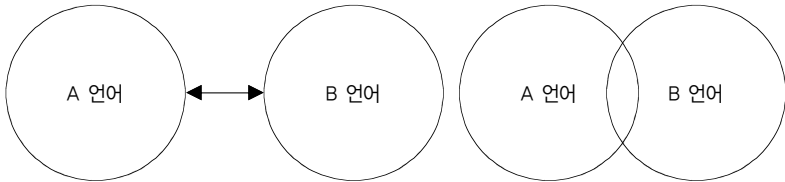


<그림 2> 완전 통합 모형

<그림 1>의 완전 분리 모형은 학습자가 갖고 있는 두 언어 사이에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의 모국어와 전혀 별개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며,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모국어의 영향이나 모국어를 미치는 외국어 교육의 영향에 관한 논의도 불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Dulay & Burt, 1980 ; Hockett, 1960 ; Weinreich, 1953). 반면, <그림 2>의 모형이 보여주는 모국어와 중간언어의 완전 통합 상태는 두 언어가 학습자의 머리 속에서 하나의 체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사용하는 어휘나 발음 등 모든 측면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와 중간언어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고 학습자의 머리 속에는 모국어도 아니고 중간언어도 아닌 새로운 통합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ramazza & Brones, 1980 ; Williams, 1977). 학습자의 머리 속에 두 언어가 아닌 통합된 하나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실 두 언어 사이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완전 분리 모형이나 완전 통합 모형은 너무 극단적인 모형으로 실제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Cook, 2002a, 2003 ; Francis, 1999). 외국어 학습자가 갖고 있는 두 언어의 체계를 좀 더 정확히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모형이 바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완전 분리도 아니고 완전 통합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의 상호작용 모형이다.



<그림 3> 상호작용 모형 (Cook, 2003, p.8)

<그림 3>은 두 가지 상호작용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학습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두 언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두 가지 언어가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은 사실 실제적으로 같은 관계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다중 언어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어 학습자의 모국어는 예전처럼 외국어 습득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다. 학습자의 머리 속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와 중간언어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모국어는 중간언어로부터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국어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를 전혀 학습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모국어에 대한 지식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그 차이는 다름 아닌 바로 모국어에 대한 외국어 학습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이중언어 사용 환경의 다양성

이중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기 및 목적도 매우 이질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중 이중언어 사용의 다양한 환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심정적 지지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어인 한국어에 미치는 영어교육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조기 영어교육으로 인하여 모국어 습득이 늦어지거나 우리 말 구사능력이 떨어진다는지, 지나친 영어교육으로 인하여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는지 하는 비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과학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감정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지만, 이 역시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혹은 한국의 이중언어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들은 외국어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외국어와 외국 문화, 그리고 외국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실제로 모국어로 된 책이나 매체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권의 문학 작품과 역

사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외국어 교육은 줄 수 있고, 또한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지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소수 민족 문화를 비롯한 타문화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언어와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중언어 교육, 혹은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중언어의 사용의 환경에 따라서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이중언어 환경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거의 같은 비율로 외국어를 사용하며 동시에 두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습득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이중언어의 습득 및 사용 환경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국어와 거의 동시에는 아니지만 매우 어린 나이, 즉 3세에서 5세 이전에 외국어를 습득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춘기가 훨씬 지난 15세나 20세 이후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 두 경우 어느 한 쪽만이 이중언어 환경에 속하고 다른 쪽은 이중언어 습득 환경이 아니라고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은 누구도 제시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며, 따라서 대체적으로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외국어를 접하고 학습을 시작했다면 이중언어 학습 환경이고 그 학습자는 이중언어 사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중언어의 습득 및 사용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이중언어 사용 환경에 따라 외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모국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5세 이전에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어린이와 20세 이후에 외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모국어를 비교, 대조한다면 외국어 교육의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환경에서 영어를 배

우는 경우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및 문법, 어휘 등에 미치는 영어의 영향 역시 매우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에 우리 한국의 영어 교육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 영어 몰입학습과 같은 환경에서 수업을 영어로 받는 경우와 영어를 학습하지만 수업은 모국어인 한국어로 진행되는 경우 역시 학습자의 모국어인 한국어에 미치는 영어 교육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중언어 사용이 모국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이중언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면 한국의 영어 교육 및 사용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영어 교육은 오랫동안 주로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중학교, 즉 13세 이후에 처음 영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초등학교 3학년, 즉 9세부터 영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13세와 9세라는 4년의 차이는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의 영어 교육, 다시 말해 이중언어 교육은 매우 큰 변화를 겪는다.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으로 인해 영어 교육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폭발하였고 그에 따라 공교육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영어교육의 필요를 사교육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중학교 이후의 영어교육이 학교 교육에서의 시험이나 진급을 위한 영어 교육이었다면 초등학교부터 실시한 영어교육의 주류는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의 영어 교육은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그 전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학교 현장의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은 연간 100시간 내외, 혹은 그보다 훨씬 적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사교육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그 것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게 될 많은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다지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직접 우리의 상황에 적

용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우리의 영어 교육 상황과 그것이 한국어 교육 및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외국어 교육과 모국어

본 장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모국어의 습득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외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모국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모국어의 쇠퇴, 역전이(reverse transfer), 학습자의 일반적인 인지능력, 그리고 모국어로 읽고 쓰는 능력에 미치는 외국어 교육의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1. 모국어의 발음

1950년대 외국어 교육 분야의 대조분석에 관한 연구와 논의 가운데 가장 활발한 측면은 바로 모국어가 외국어의 발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발음은 정신운동(psychomotor)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모국어를 습득하면서 굳어진 구강 근육의 움직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모국어에서 외국어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어에는 없는 영어의 발음을 학습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한 정도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모국어의 발음이 외국어의 발음 학습 및 습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습득을 하게 된다면 새롭게 형성된 외국어의 발음 체계로 인해 모국어의 발음에

역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를 받음 하면서 굳어진 발음 습관이 모국어를 받음할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Flege(1987)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아랍어(Arabic)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랍어에는 없는 영어의 발음이 아랍어 화자들의 모국어 발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아랍어는 무기무성자음(unaspirated voiceless consonants)을 갖고 있는 언어인데, 외국어로 영어를 배운 학습자들은 영어의 유기무성자음(aspirated voiceless consonants)의 발음을 모국어인 아랍어를 받음할 때에도 사용한다는 것이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운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모국어 발음의 변화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외래어의 사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운 학습자들의 ‘커피(coffee)’ 발음과 영어를 배운 경험이 없는 한국 사람들의 발음은 많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상당한 시간동안 영어를 학습한 학습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와 같은 영어 학습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의 영어 학습을 통해서 영어가 한국어 발음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영어 교육이 한국어의 발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영어 조기 교육이다. 모국어인 한국어의 발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이전에 실시하는 영어 교육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한국어의 발음을 완전히 습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국어를 완전히 습득한 이후 외국어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발음 체계를 익히는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발음 체계를 습득하지도 못한 채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영어의 발음 체계를 먼저 습득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모국어인 한국어를 통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실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특히 영어 조기 교육의 확대에 앞서 조기 영어 교육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한국어의 발음을 습득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2. 모국어 쇠퇴

모국어에 대한 외국어 교육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영역은 바로 모국어의 쇠퇴 현상(attri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국어 쇠퇴는 그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현저한 모국어 쇠퇴 현상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만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더 이상 모국어가 아니고 외국어인 경우 모국어 사용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으로써 쇠퇴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Porte(2003)의 연구에 의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교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 매우 심각한 정도의 모국어 쇠퇴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의 경우 수업 시간은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은 하지만 주위의 언어 환경이 자신들의 모국어와는 다른 현지 언어의 사용이 거의 대부분일 경우 장기간에 걸친 현지어에의 노출은 필연적으로 모국어의 쇠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 교육의 부정적 영향인 모국어 쇠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외국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거나 공용화 한 경우라고 하겠다. 모국어 쇠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와 연구를 보고한 Seliger와 Vago(1991)에 의하면 모국어 쇠퇴는 특히 자신들의 모국어가 소수 민족의 언어인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LA나 뉴욕 같이 한국인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많이 사는 사회로 가는 경우에는 모국어 쇠퇴 현상이 심하지 않은 반면, 한국인과 접촉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영어만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쇠퇴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영어교육의 부정적 영향의 결과로 모국어인 한국어의 쇠퇴가 일어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영어 공용화

에 대한 논의도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학교에서 몰입학습 (immers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도 일 주일에 3~4시간, 1년에 100여 시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어교육의 영향 때문에 모국어 쇠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논의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3. 역전이(reverse transfer)

외국어를 배울 때 일어나는 전이(transfer)는 사실 어느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을 비롯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학습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모국어와 외국어의 관계에서 나중에 습득, 혹은 학습을 하는 외국어가 먼저 습득이 이루어진 모국어에 영향을 미치는 역전이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Kecskes(1998)는 모국어가 헝가리어이고 외국어로 영어와 불어, 러시아어를 학습하는 14세에서 16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의 유형이 모국어인 헝가리어의 종속절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종속절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구조로서 복잡한 사고 구조를 나타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 수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몰입반으로서 내용 과목의 수업을 불어로 진행하는 반이고, 영어 수업을 주당 7~8시간을 받고 나머지 수업은 모국어로 수업을 받는 특별반, 그리고 주당 2~3시간만 외국어 수업을 받고 다른 수업은 모국어로 수업을 하는 통제반으로 나누었다. 세 가지 유형의 외국어 수업을 받아 온 학생들이 모국어인 헝가리어의 종속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불어로 몰입 수업을 받은 몰입반 학생들이 다른 두 반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자주 종속절을 사용하는 것이 나타났고, 또 영어 수업을 주당 7~8시간 받은 특별반 학생들도 통제반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종속절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Kecskes는 외국어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익숙해진 의식적인 사고 방법(*conscious ways of thinking*)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국어를 사용할 때에도 자신들의 사고를 모국어의 언어 형태에 반영시킨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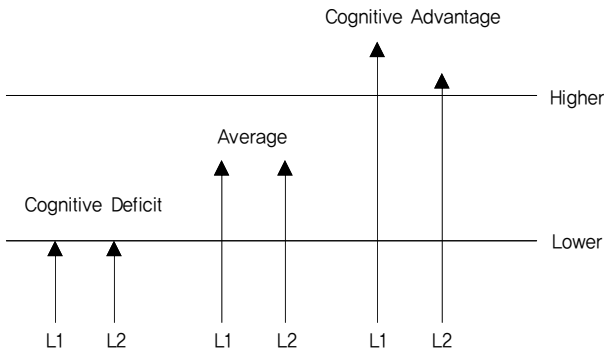
Pavlenko와 Jarvis(2002)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사춘기가 지나서 영어를 학습하기 시작한 토플 600점 이상의 러시아 대학생 22명에게 이야기(story)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영어와 러시아어로 재구성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모국어인 러시아어의 사용에서 원래 러시아어에는 없는 camera나 film같은 영어에서 사용하던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모국어의 의미 영역이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원래 러시아어에서는 영어의 형용사적 구문(예를 들어, "She was sad.")이 아닌 동사적 구문(예를 들어, "She was being sad.")을 주로 사용하는데, 학생들의 러시아어에서는 영어의 형용사적 구문이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학생들의 모국어인 러시아어가 외국어인 영어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Jarvis(2003)에서는 모국어가 핀란드어이고 외국어로 영어를 배워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된 한 핀란드 여성의 사례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영어를 학습하고, 23세에 미국으로 와서 현재 34세에 이른 이 핀란드 여성은 평상시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외국어인 영어의 규칙을 핀란드어에 적용하여 사용한다든지 영어의 단어나 문법 규칙의 역전이에 의한 모국어 사용의 오류를 많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역전이에 의한 오류는 일상적인 회화에서 주로 나타나고 주의를 기울이고 격식을 차려서 말을 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를 학습할 때 일어나는 역전이를 통한 모국어의 변화는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역시 학습자의 외국어 능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주로 나타나고, 그 양상도

모국어의 사용이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학습자들의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

1970년대 이후의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은 언어 습득은 인지 구조의 형성을 의미하고 외국어의 습득은 인지 구조의 재구조화라고 주장한다. 외국어를 학습하고 습득하게 되면 학습자는 모국어만을 알고 있을 때와는 다른 인지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외국어의 학습은 학습자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들의 모국어 능력 이외에 수학적 계산 능력이나 논리적 추론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지 과정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Cummins와 Swain(1986)이 제시했던 이중경계 모형은 외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4>를 먼저 보자.



<그림 4> 이중경계 모형

<그림 4>의 이중경계 모형에 의하면 어떤 언어든 평균 수준에 도달

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인지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하게 되며, 모국어든 외국어든 언어적 능력이 평균에 도달하게 되면 인지 능력도 평균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언어에서 모두 상급 수준에 이른 학습자들은 인지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면 기존에 모국어만을 갖고 있을 때의 인지 구조에 결손을 초래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구조보다 훨씬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모국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인지적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Bialystok(2001)은 외국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지식(knowledge) 그 자체가 아니라 받아들인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즉 통제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모국어 이외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 사람은 새로운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모국어만을 사용하는 화자에 비하여 유리한 점은 새로운 언어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 지식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의 학습자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의식적으로 문법을 학습하게 되면 예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어의 문법을 의식하게 되고, 영어 문장을 사용하면서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의 구조와 기능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예전에 한국어만을 사용할 때 가졌던 사고방식이나 체계도 영어를 사용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사고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몰입학습(immersion)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인지 능력과 관련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Bournot-Trites와 Reeder(2001)은 영어가 모국어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불어 몰입학습 프로그램에서 불어로 수학을 배웠을 경우 모국어인 영어로 치르는 수학 시험에서 과연 학습자들의 성취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조사하였다. 거의 3년여에 걸친 몰입학습의 결과 불어로 수학을 배운 학습자들의 수학 실력은 영어로 수학을 배운 학습자들에게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외국어로 수학을 배운 경우에도 학습자들은 모국어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어 몰입학습 프로그램을 연구한 Turnbull, Hart, Lapkin(2003)에서도 역시 외국어인 불어로 수학을 배운 학습자들이 모국어인 영어로 수학을 배운 학습자들에 비해서 월등한 수학 실력을 나타낸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영어로 진행된 읽기와 쓰기 시험에서도 불어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70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성취 수준에 도달했으나, 영어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50퍼센트 정도의 학생들만이 성취 수준을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역시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를 사용한 수학 및 읽기, 쓰기 시험의 수행 능력에 절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Armstrong과 Rogers(1997)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학습하였을 때 학생들의 모국어 읽기 능력과 문법이나 작문 능력, 그리고 수학 실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매주 90분간 스페인어로 수업을 하고 한 학기가 지난 후 모국어만을 사용하여 수업을 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비교를 한 결과 스페인어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수학 실력과 문법, 작문 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읽기 능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rmstrong과 Rogers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수학 시간의 일부를 따로 떼어 외국어인 스페인어 수업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스페인어를 학습한 학생들은 스페인어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학을 학습한 시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실력에 있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수학을 학습한 학생들보다 더 나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국어 학습이 수학 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인지 능력의 발달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5. 읽고 쓰는 능력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는 능력의 저하를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국어로 글을 쓸 때조차 외국어의 어휘를 언급한다든지, 외국어의 글쓰기 형식을 따라한다든지, 나아가 모국어로 된 글을 읽을 시간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를 드는 것이다. 모국어로 읽고 쓰는 능력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외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또한 몰입학습처럼 외국어로 된 교재로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국어로 된 글을 읽고 쓸 시간이 줄어들고 모국어 읽기와 쓰기 수업 시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것이 모국어로 읽고 쓰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하게 될 것이다.

모국어로 읽고 쓰는 능력에 외국어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역시 대부분 몰입학습 프로그램의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Cunningham과 Graham(2000)은 스페인어 몰입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습자들과 모국어인 영어만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에게 영어 단어를 주고 일치하는 그림을 고르게 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그 결과는 몰입학습을 받은 이중언어 학습자들이 영어만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에 비해 월등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모국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에 있어서 외국어 학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Tabor(1987)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외국어를 학습한 경우 그들의 모국어인 영어 읽기 능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영어 읽기 점수에서는 외국어를 학습한 학생들과 외국어를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Tabor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여 지적 능력이 높은 학생들과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지적 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외국어를 학습한 집단과 외국어를 학습하지 않은 집단 사

이에 읽기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지적 능력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의 비교에서는 외국어를 학습한 집단이 학습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읽기 능력에 있어서 우월함을 보였다. 따라서 외국어를 학습한다고 해서 모국어의 읽기 능력에는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외국어 교육이 모국어의 습득이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외국어의 학습이 모국어의 습득이나 발달에 그다지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의 발음이나 문법, 학습자의 인지능력, 그리고 모국어 읽기나 쓰기 능력의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모국어인 한국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백퍼센트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한국어는 계통상 영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언어이고, 발음이나 철자법, 표기법에 있어서도 선행 연구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언어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 한국어의 습득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충분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교육이 모국어인 한국어의 습득이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영어 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여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많이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영어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 어떤 부정적 혹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오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그런 가운데

이화자(2000)의 연구는 초등학교 취학 전인 5세에서 6세의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받은 유아들의 모국어 습득과 인지 발달 양상을 연구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휘력, 언어 이해력, 언어 표현력의 3가지 영역에 대한 모국어 습득 정도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유아들과 영어 교육을 받지 않은 유아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유아들의 인지 능력의 측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화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이 유아들의 모국어와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일주일에 극히 한정된 시간만을 영어의 입력을 받는 상황에서는 영어 교육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갈 것이고,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취학 전 유아기와 성인들에 대한 영어 교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기를 비롯하여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은 모국어의 습득과 발달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이 과연 모국어인 한국어의 습득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확대되는 영어 교육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어 교육이 우리의 모국어 습득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모국어 교육 정책 및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본 논문은 2007. 10. 24. 투고되었으며, 2007. 11. 6. 심사가 시작되어 2007. 11.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이화자(2000), “취학전 아동의 영어교육이 모국어와 인지발달에 끼치는 영향”, 국어교육학 연구, 제12집, 145~165.
- Armstrong, P. W., & Rogers, J. D.(1997), Basic skills revisited : The effects of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on reading, math, and language arts, *Learning Languages*, 2(3), 20-31.
- Bialystok, E.(2001), *Bilingualism in development : Language, literacy and cognition*,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not-Trites, M., & Reeder, K.(2001), Interdependence revisited : Mathematics achievement in an intensified French immersion program,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8(1), 27-43.
- Caramazza, A., & Brones, I.(1980), Semantic classification by bilingual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34(1), 77-81.
- Cook, V. J.(2002), Background to the L2 user. In V. J. Cook (Ed.), *Portraits of the L2 user*(pp.1-28). Clevedon, UK : Multilingual Matters.
- Cook, V. J.(2003), Introduction : The changing L1 in the L2 user's mind. In V. J. Cook (Ed.), *Effects of the second language on the first*(pp.1-18),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Cummins, J., & Swain, M.(1986), *Bilingualism in education*, London, England : Longman.
- Cunningham, T. H., & Graham, C. R.(2000), Increasing native English vocabulary recognition through Spanish immersion : Cognate transfer from foreign to first langua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37-49.
- Dulay, H. C., & Burt, M. K.(1980), On acquisition orders, In S. Felix (Ed.), *Second language development : Trends and issues*, Tübingen : Narr.
- Flege, J. E.(1987), The production of new and similar phones in a foreign language : Evidence from the effect of equivalence classification, *Journal of Phonetics*, 15(1), 47-65.
- Francis, W.(1999), Cognitive integration of language and memory in bilinguals : Semantic re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5(2), 193-222.
- Hockett, C. F.(1960), The origin of speech, *Scientific American*, 203, 88-89.
- Jarvis, S.(2003), Probing the effects of the L2 on the L1 : A case study, In V. J. Cook (Ed.), *Effects of the second language on the first*(pp.81-102), Clevedon, UK :

Multilingual Matters.

- Kecskes, I.(1998), The state of L1 knowledge in foreign language learners, *Word*, 49(3), 321-340.
- Pavlenko, A., & Jarvis, S.(2002), Bidirectional transfer, *Applied Linguistics*, 23(2), 190-214.
- Porte, G.(2003), English from a distance : Code-mixing and blending in the L1 output of long-term resident overseas EFL teachers, In V. Cook(Ed.), *Effects of the second language on the first*(pp.103-119), Clevedon, UK : Multilingual Matters.
- Seliger, H., & Vago, R.(1991), *First language attrition*,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bor, K.(1987), *The relationship of reading scores to participation in a FLES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N.
- Turnbull, M. D., Hart, D., & Lapkin, S.(2003), Grade 6 French immersion students' performance on large-scale reading, writing, and mathematics tests : Building explanations, *The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XLIX*, 1, 6-23.
-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The Hague : Mouton.
- Williams, L.(1977), The perception of consonant voicing by Spanish English bilinguals, *Perception and Psychophysics*, 21(4), 289-297.

〈초록〉

국어교육과 영어교육

-모국어에 미치는 외국어 교육의 영향-

황중배

본 연구는 외국어 교육이 모국어의 습득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방면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이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 습득 및 한국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향후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 및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어 교육이 모국어의 습득이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외국어의 학습이 모국어의 습득이나 발달에 그다지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어 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모국어의 쇠퇴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한국적 영어교육의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 또한, 모국어의 발음이나 문법, 학습자의 인지능력, 그리고 모국어 읽기나 쓰기 능력의 향상에는 외국어 교육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상황에서 영어 교육이 모국어인 한국어의 습득이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영어 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여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많이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영어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 어떤 부정적 혹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어 교육이 우리의 모국어 습득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모국어 교육 정책 및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모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 모국어 쇠퇴

<Abstract>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English Education in Korea

—Effects of English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Hwang, Jong-bai

The present study reviews previous studies which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on the acquisition or education of native language, and explores an effective wa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considers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English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Most of negative effects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have been found in the area of native language attrition, which is not important in the context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Positive effects have been more frequently reported than negative effects in the areas of native language pronunciation, grammar, learners' cognitive ability, and native language literacy.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few studies which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glish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in Korea. Future studies which try to find the effects, positive or negative, of English education on many aspec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required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olici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English education, language attrition

【토론문】

“국어교육과 영어교육(모국어에 미치는 외국어 교육의 영향)”에 대한 토론문

심영택(청주교육대학교)

질문 1) 흔히 제일언어(L1)와 제이언어(L2)를 언어 학습의 순서(1차/2차언어),
아동이 태어난 지역(토박이/비토박이), 부모의 언어(모어/외국어), 사
용 및 선호에 있어 숙달성(primary / secondary), 자신감(stronger / weaker)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발표자가 주장하는 L1, L2의 구
분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영어를 L2로 분류
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1980년
대를 기준으로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L1, L2의
관계를 달리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적으
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질문 2) Macnamara(1966 : 11)는 bilingual(이중언어사용)과 bilingualism(이중언어
능통)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발표자가 사용한 bilingualism에
는 bilingual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자를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bilingualism도 equilingualism,
ambilingualism, balanced bilingualism 등 다양하며, Fishman(1966 :
126) 같은 학자는 두 언어의 구사 능력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우세 현상(dominance of configuration)’을 보이
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필자는 bilingualism을 어떤 입장에
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질문 3) 중간언어(interlanguage)에 대한 질문으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중간 언어 현상과 그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흔히 Konglish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중간 언어를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Konglish가 영어를 배우는데,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질문 4) 한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한국어에 대한 메타적인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한국어가 L1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즉 L2를 가르치면서 서로 간에 대조를 통한 분석적인 접근이 결론적으로 더 고급스러운 영어를 배우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영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심도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질문 5) 발표자의 내용에 따르면, 발음과 모국어의 쇠퇴, 역전이 등은 주로 ‘어휘 체계와 문법 체계’에, 인지 작용은 주로 ‘사고 방식과 지식 체계’ 등에, 읽고 쓰는 능력(literacy)은 주로 ‘언어 생활 능력’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예를 보면 주로 영어와 그 계통이 유사한 언어(프랑스, 스페인 등)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언어 특징을 고려하면 이들 예외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어에 간섭 현상을 보이는 예들에 대해 궁금하다.

질문 6) 최근에 한국에서도 literacy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육적인 접근법과 지도 방법이 달라진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이 개념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CUCB(common underlying conceptual base)에 대한 개념이 다소 생소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궁금하다.